

북악산 개방 시범답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해 주니 저도 기쁩니다.

대통령 자리가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 누리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해외 나갈 때는 전용기나 전세기를 타기도 하고, 공식적인 나들이할 때는 도로 교통을 적절하게 통제해 신호 대기하지 않고 가기도 하는 등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북악산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처음 대통령 되어서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이 북악산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라와 보니 참 좋아요. 처음에는 혼자 누리는 것이 특권인 것 같아 기분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보면 옛날 사람들이 다녔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돌계단도 그렇고 약수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느 때인가 사정이 있어서 막았겠지만 시민들에게 돌려주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돌려주려고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막아 놓고 지키면 부담이 적는데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경비하는 것이 군부대로서는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처음엔 문만 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름답게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다듬어서 열겠다는 생각으로 좀 더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높은 안목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추억을 되살려진 자부심 있는 공간으로 훨씬 더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성벽은 서울의 역사를 실감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벽에서 내려다보면 경복궁 참 좋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90만평이 서울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면, 그 곳을 녹지와 문화 공간으로 가꾸면서 건너편 남산에서 용산, 한강으로 이어지는 녹지와 문화 공간으로 복원되게 됩니다. 외국군이 주둔했던 것도 역사고, 돌려받은 것도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의 상징물이 만들어지면서 서울 시민 누구나 지하철 표 한 장 사들고 가볍게 나가서 즐길 수 있는, 가난한 연인들도 하루 보내기 어렵지 않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울을 역사와 문화, 숲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면 서울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공동체로 발전해야

행정도시가 생기면 서울시민들이 섭섭할 수 있겠지만, 서울에 너무 집중되면 시민들이 불편해집니다. 돈과 권력, 정보가 한군데 집중되면 거대한 권력이 발생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어렵게 하는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심하면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민이 과반수고 서울 출신 국회의원이 과반수라면 서울시민이 싫어하는 어떤 결정도 이뤄질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이 좋아하는 것은 지방의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무엇이든 관철되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국

가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면 서울은 국제적으로 경제와 정보가 집중되는 최고의 도시, 역사와 문화, 자연과 숲이 복원돼 사람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전 국토가 조금씩 나뉘어서 발언권이 비슷한 국토에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공동체로 발전할 것입니다.

농촌은 새로운 공동체로, 바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나중에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공동체로 복원될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처럼, 아이들이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뛰어놀 수 있는 자연의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국토로 재편성할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서울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이 북악산 꼭대기에 올라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가 생겨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안목도 커지고 넉넉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면 한참 있다가 오시게 될 테니 서울을 눈 안에 담아가길 바랍니다. 기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